



30일 서울 컨싱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북연고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들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정치권과 국가예산 총력 대응

전북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앞서 대응전략 등 논의

김관영 도지사, 민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전북 예산 확보 건의

전북도는 본격적인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정상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현안 법안 등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확고한 공조체제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연고 국회의원 회의에서는 안구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 김

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실국장들과 열린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 감사 기간 중 새만금 SOC 정상화와 전북 현안 질의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 심의에서 정치권과 도가 힘을 모아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며 동시에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만금 SOC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각 심의

위 및 예결위 심사에서 반드시 증액 반영되어야 하는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별 전략적 역할 분담을 요청하고, 더불어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20건의 예산변경을 건의했다.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생명산업 분야 주요사업으로 농기계 기업의 기술 자립화 촉진과 수출자향형 글로벌 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첨단 시설원에 농업 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창업 기회 제공 및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의 국회단체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업경제분야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이차전지 R&D 혁신 허브 조성 등을 위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구축’과 폐연료전지 재사용 인종·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원 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복지·환경·안전분야 사업으로는 전북 산재 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산재 전문병원 건립’과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관련 기관이 부재한 전북에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고창 지역센터 건립’ 및 섬 주민 이동권 증진과 연도 항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진 주요 현안 논의시간에서는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 10개사업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지원’과 ‘국립과학원사 박물관 조성’ 등 현안 해결에도 힘을 실어 주길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 경지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치 지역 소멸위기 극복할 것”

김관영 도지사, '전북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 체결

전북(도지사 김관영)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축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됐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공감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북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대 합당 인원(400명)을 확보한 후 대상지를 조기모집한 성과를 거뒀고, 지자체 최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지원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김관영 도지사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협약식 후 열린 차담에서도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호 공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완주군 삼례읍의 딸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재훈 기자

마라톤 투쟁 도의원들 “새만금 살려내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목소리 높여

“새만금을 살려내라”는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 투쟁 중인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30일 영영산(정읍2) 대변인, 김동규(군산2) 의원, 박용근(장수) 의원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흉내 규탄한다”

는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박 의원 등은 피켓시위 현장에서 “34년간 희망 고문인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비로소 비상하려는 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는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짹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죽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 “마라톤 투쟁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정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 마라톤 투쟁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총 280km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구간별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호우피해 복구 재난구호금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30일 의정실에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기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6월 27일부터 한달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전북·세종·충북·충남·경북 5개 시도도회의 요청에 의해 대한민국 시도도회의장협의회 지원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대한민국 대표 임실치즈는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바른 먹거리입니다!

문의 : 063)640-6426